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네 병거

(스가랴 6:1 - 8)

스가랴 선지자는 여덟 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병거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이 끌고 있습니다. 병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공휼을 땅 위에 내리시는 대리 사역자로 나타납니다.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1. 네 병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1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때 스가랴의 눈 앞에 네 병거가 두 개의 돛 산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산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을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웠는지라”(2,3절).

붉은색은 전쟁, 피를 말하고 검은색은 슬픔을 상징하며 흰색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죽음과 슬픔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파사에게 망하고 파사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룡진 색깔은 혼란된 색깔을 말하는데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남쪽, 곧 애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할 재앙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병거를 5절에서는 바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가는 것이라 하더라”(5절).

바람은 영을 말하는 것으로 네 바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가의 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 6장 8절까지에는 세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북쪽의 바벨론에 내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이타을 로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개인과 국가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교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8절).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메시아의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히 쏟아질 것입니다.

2.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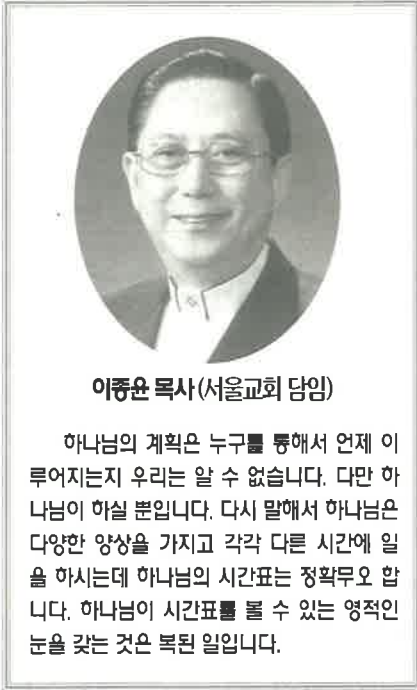
각색 말이 끄는 병거의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니까?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구리 산과 같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허물이 없고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일을 경영 하시면서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법이 없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본문의 네 병거는 각각 서로를 삼키는데 바벨론이 앗시리아를 삼키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키고, 희랍이 페르시아를 삼키고, 희랍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모든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무오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실 때 결코 실패하거나 낙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향한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 섭리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천사, 사람 천사, 사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통해서, 또 땅의 거주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들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시간을 따라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시간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무오 합니다.

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섭리의 모든 도구와 사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바람이 임의로 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까지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섭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6절). 슬픈 일들이 사라진 후에 승리가 옵니다. 환난 후에 위로가 온다는 말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섭리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에 얼룩지고 건장한 말이 마지막 병거를 끌고 있는데 처음에 남쪽으로 갔다가 후에는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검거나 흰 것 뿐 아니라 희고 검고 얼룩진 것들로 세상이 혼합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휼이고 심판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검은 말을 보내시어 우리를 슬픔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느 때는 흰 말을 보내시어 우리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조화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지 않은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때로는 슬퍼할 일이 아닐 때도 그 가운데서 절고를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8절). 북쪽 바벨론, 곧 세상에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있게 다스리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니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시작

-7월14일 대 · 청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쉼을 얻는 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자세한 일정은 여름 성경학교 · 수련회가 7월 14일(수) 대학 · 청년부 수 다음과 같다.

부서	주제	일정	장소	강사
유아부	하나님 나라의 씨앗	7/22(목) - 23(금)	서울교회	이종윤, 박금실
유치부	어디서나 믿음의 열매를 맺어요	7/22(목) - 23(금)	서울교회	이종윤, 이규정
유년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7/22(목) - 24(토)	서울교회	이종윤, 이태훈
초등부	복음의 비전을 꿈꾸는 어린이	7/22(목) - 23(금)	서울교회	이종윤, 이성득
중등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자	7/29(목) - 31(토)	진위고등학교	이종윤, 윤영국
고등부	주 예수를 믿으라	7/26(월) - 28(수)	진위고등학교	이종윤, 오정식
대학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제자도	7/14(수) - 17(토)	원주지역산관광농원	이종윤, 서명철
청년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청년	7/14(수) - 17(토)	강화도신석수양관	이종윤, 이태훈, 오덕교
신혼가정부	하나님 나라 = 가정, 직장	8/19(목) - 21(토)	쌍용양회수양관(동해)	이성득, 이규정
장년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7/23(금)	서울교회	이종윤, 김운호, 안 민
사랑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일꾼이 되자	7/17(토) - 18(주)	서울교회	이종윤, 이용식
에비다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에비다부	8/8(주)	서울교회	서명철, 임규현
디아스포라부	나를 찾아떠나는 여행	7/23(금) - 24(토)	쌍용양회수양관(동해)	이용식, 박광일

2004년도 하반기 교사 및 찬양대원 추가 임명

교회는 전반기 동안 각 교회학교 및 찬양대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하는 교사 및 찬양대원이 발생하고 또 추가로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당회는 다음 각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교사명단>

- <교육1국>
 - 유년부: 최봉희 박은정
 - 초등부: 김덕수 원희숙 이인영 김경현 조광희 남기원 박덕호 김규만 공나진 김진희 박현주 안정배 양호경 오세정 이창희 김현나 김순덕
- <교육2국>
 - 중등부: 안준홍
- <교육3국>
 - 청년부: 유기찬, 윤용미
 - 디아스포라부: 문주영
- <교육4국>
 - 오리문답부: 양정실, 은기장, 서경애
- <교육5국>
 - 신앙강좌부: 이수련 이진구 문옥희 정명숙 (이상 30명)

새로 임명받는 교사와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소임을 받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충성해야 한다.

오늘 새로 임명받는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찬양대원명단>

- 가브리엘 찬양대: 김동욱 박명철 서대식 유동인 유명중 유인정 윤준호 이소명 이정남 이형희 정명숙 최정희 한선규 -13명
- 할렐루야 찬양대: 김익환 신홍철 우고은 임민철 최 인 -5명
- 임마누엘 찬양대: 강미혜 -1명
- 베들레헴 찬양대: 강승웅 권만수 김대호 김삼연 김익환 김정호 서명근 이병현 정수환 정찬두 조선진 주영도 최광성 최규초 최일호 최호영 -16명
- 호산나 찬양대: 이덕희 이현주 -2명
- 시온 찬양대: 김명숙 최향숙 -2명
- 클로리아: 김명희 김미성 김순덕 김태미 -4명 (이상 43명)

장학위원회 위원장 대영: 전기섭 장로
장년5부 부장 대영: 이재운 집사

2004 농촌전도대 조직 확정되다

지난 주 순례자를 통해 금년 농촌전도대를 파송할 교회로 경북 봉화의 분천중앙교회를 발표한 농촌전도대(대장: 이관규 장로)는 부서별 조직을 확정하고 2004 농촌 전도대로 수교할 성도들의 명단과 함께 농촌전도대원 교육일

정을 발표하였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촌 전도와 봉사에 열정을 가진 헌신자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전도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후원도 받고 있다.(회비 10000원) 신청과 후원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조직>

- 지도: 이규정 목사
- 대장: 이관규 장로
- 총무: 오광환 집사 부총무: 최광성 집사
- 서기: 김규태 집사 회 계: 양춘경 집사
- 전도분과장: 최규초 집사
- 교육찬양분과장: 최치순 집사
- 시설홍보분과장: 장영필 집사
- 의료분과장: 조동원 집사

- (A팀장:국산옥권사B팀장:이동수장로)
- 이미용분과장: 김종윤 집사
- 취사분과장: 주경자 권사

<대원 교육일정>

- 1차 - 오리엔테이션 7월18일(주일)
- 2차 - 전도교육 7월25일(주일)
- 3차 - 전도교육, 각 분과별 확인 8월 1일(주일)
- 4차 - 총집중, 기도회(전도교육, 임무확인) 8월6일(금)

장로 수련회

8월13일(금)-14일(토) 진위고등학교에서

스데반회 수련회

7월16일(금)-17일(토) 오대산에서

장로수련회(당회서기: 김광신 장로)와 우리교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스데반회(간사: 오광환 집사) 수련회가 열린다.

장로수련회는 8월13일(금)부터 14일(토)까지 1박 2일간 평택의 진위고등학교에서 열리며 스데반회 수련회는 7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강원도 오대산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장로 수련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를 주제로 이종윤 목사와 김기수 목사 두 분이 수고하시게 되며 스데반회 수련회는 담임목사이신 이종윤 목사의 특강과 기도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안수 집사로 피택된 이들도 함께 참석하게 된다.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의료선교회

진료 시작하다

둘째, 넷째 주일 오후2:30-3:30

미스바 홀(102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직된 의료선교회가 한방진료를 시작하였다. 의료선교회는 매주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동안 102호 미스바 홀에서 한방진료를 하게 된다. 매월 둘째 주일에는 김영주 원장(북경 한의원)이 매월 넷째 주일에는 박동원 원장(박동원 한의원)이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 양방 의료상담도 가능하다고 한다.(상담안내: 011-9950-5597)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

한현숙 집사 임명

교회는 오랫동안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로 찬양대 양성반 반주자로 수고해오던 김지운 선생이 유학준비를 위해 사임함에 따라 시온 찬양대 피아니스트로 한현숙 집사(2교구)를 임명 하였다.

금주의 성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 138:1-2)

I will praise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before the "gods" I will sing your praise. I will bow down toward your holy temple and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r love and your faithfulness, for you have exalted above all things your name and your word. (NIV Psalms 138:1-2)

장로가정탐방-이영기장로 가정편

오직 믿음으로

이 장로님의 하루는 출근 직후 전 직원과 함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된다. 지난 86년 창업한 이래 아침 예배 때 드리는 찬송가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이 예배가 없었다면 이토록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지금의 회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정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손자까지 5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이영기 장로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감사제목이다. 큰 딸인 현주와 대원, 대중, 신명 세 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이 장로님은 크게 감사하고 있다. 지난 1945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 장로님은 모태신앙으로, 독실하신 조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또 대학, 청년시절까지 섬기던 광주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다고 한다. 또 당시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여름 농촌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특히 청년시절 성경연구를 하는 분들의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이때 저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숙 권사님도 집중적인 성



경공부를 통해 믿음을 키워오다 대학시절 이영기 장로님과 만나 결혼을 했다. 이 장로님이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 전부터였다. 당시 서울에서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이 장로님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임상현 장로님으로부터 이종운 목사님 얘기를 듣고 93년 1월 목사님과 만나 상담을 한 뒤 곧바로 서울교회로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특별하신 은혜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더니 서울교회와 이종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장로님은 베들레헴 찬양대와 장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고 권사님은 영어성경반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는 이영기 장로님은 현재 잘되고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셨듯, 지금의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이 장로님은 오늘도 기도하신다.

김민철(편집부)

민민에게전도-제4기 단기선교팀 도서비자회를 가다

영혼의 양식을 팝니다

기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 하러 8층 식당에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조용했던 평소와는 달리 시끌벅적하니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를 나서서 보니까 식당 문 앞에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의 책바자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열 명 남짓한 젊은 청년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여러분~ 책 한 번 보고 가세요~!" 하고 시원스레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흥겹던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한다는 동기에 고취돼서인지 이 청년들은 책바자회를 하는 것이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 라죠.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경쾌한 소리에 이끌려 어느새 저도 그 앞에 서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하던 성도님들도 호기심에 하나 둘 가판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바자회를 하는 건가요?" 부터 "이 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학생이 좋은 책 하나 좀 골라주세요."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학생들은 열성으로 책을 설명하고 추천할만한 책을 골라주었습니다. 책



바자회에 나온 책은 단기선교팀원들이 각자 집에 갖고 있던 책을 내놓은 것이라 그만큼 책에 대한 애정도 각별해보였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책이 팔렸다면 상기된 얼굴로 자랑하는 학생도 있었을 정도니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책이 모여 모자이크를 이룬 가판대 한편에 같은 책이 수십 권이나 정갈하게 놓인 코너가 문득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히 여겨 물어보니 책바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성도님께서 본인이 번역해 출판한 책을 한꺼번에 기증하셨다고 하네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가만있을 수는 없죠. 한 사람당 한 권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기에 책이나 고심한 끝에 '내안의 옛사람 죽이기를 돕는 책'이라는 「세 왕 이야기」 한 권을 드디어 골랐습니다. 모금함에 선교헌금을 넣고 돌아서며 '단기선교에 비록 가지는 못 하더라도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모처럼 뿌듯함마저 마음껏 느껴본 하루였습니다. 7월 한 달간 매주 주일마다 책바자회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또 압니까. 마음의 양식이 영혼의 양식을 가져다줄지 말입니다. 취재: 고은실, 사진: 오주명(편집부)

민민에게전도-제4기 단기선교팀 개인도제목

기도회에는...



박덕호 집사

- 함께 단기선교에 동행하는 아내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순덕 집사

- 건강(허리통증)함 주시옵고 떠날 때 까지 장애 없도록



문옥일 집사

- 저희 가족 믿음을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명걸(대학부)

- 대원들의 건강과 방글라데시에 부흥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조대선(대학부)

-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 땅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승준(대학부)

-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 역사 가운데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박소은(대학부)

- 방글라데시의 영혼을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다음주 계속)



2004 여름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대학부 지체들에게..

이조은(대학부 회장)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간 치악산 관광농원에서 펼쳐질 아주 특별한 대학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련회는 전에도 많이 가 봤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할 게 뭐 있냐고, 꼭 지금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대학 1,2학년 생활을 보내며 하나님을 완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 자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렸으며 신앙은 바닥을 향해 치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2001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수련회가 저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4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실지 모릅니다.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만지던 세상 속에 나가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신을 얻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도록 함께 간구해봅시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되길..

이태훈 목사(청년부 지도)



우리가 닦고 싶은 훌륭한 신앙 선배들도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회심과 놀라운 체험, 자기 갱신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이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더 깊이 만나는 체험 속에서 훌륭한 영성의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 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수련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눈이 떠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깨닫고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의 지성과 육체도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사랑의 초청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찬양의 밤에 초대합니다

박정선 장로(교육5국장)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장년부 여름 수련회가 "찬양의 밤"으로 7월 23일 (금)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우리 교회의 장년부는 30대부터 70대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장년부에 속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어머니요, 아버지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밤"으로 여름수련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의 만나를 풍족히 주시는 이종운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뒤에 국제 복음주의 유학생 연합회(KOSTA)찬양강사로 활동하시는 찬양 사역사 안민 교수(고신대 교수/장로)를 초청하여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사가 고백으로 이어지고 감사와 고백이 찬양의 뜨거운 열기로 변하는 여름수련회의 밤이 되길 기원합니다. 7월 23일 저녁은 선하고 온유한 서울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이웃 형제들도 많이 초대하시어 진정한 감사의 밤!, 고백의 밤!, 찬양의 밤! 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영혼의 참된 자유 시간

이용식 목사(사랑부 지도)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 사랑부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부서입니다.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장애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진실합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도리어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도 즐겁고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나오면 큰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 장애우를 위하여 수고하며 함께 은혜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피택자 교육 전반기 학사 종료 9월11일(토) 다시 시작된다

피택자 교육 전반기 학사 일정이 지난 3일(토)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 하절기 동안 잠시 쉬고 오는 9월 11일(토) 다시 개강한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2일(월) 서울역대 이사회, 15일(목) 기독교 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 모임에 참여한다.
- 교역자 하기휴가: 지혜영 전도사 14일(수)-31(토) 대항: 이성득 목사 (연락처: 011-9034-8408)
- 백효죽 장로는 개인 사정으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를 사임하였다.
- 이사: 객세순 성도, 이정아 성도(14교구) 수서동 73-8 동일@804-604 T.445-8104
김명자성도(1교구) 용인시 신봉동 873 신봉마을 엘리자1차 @113-1001 T.031-276-5319
전용식, 조일영 성도(6교구) 김포시 장기동 월드메르디앙@ 102-202 T.031-984-0410
김진환 집사, 신자경 성도(12교구) 용인시 구성을 보정리 행원마을 동아 솔레시터 131-202 T.031-265-6365
김용남 집사(12교구) 용인시 신봉동 우남@ 510-703 T.011-9428-6505
- 개설: 박명석 권사(12교구), 김철자 성도(3교구) 양계 칼곡수 T. 529-3773
- 주간 식당봉사: 에스더 여전도회(7월11일) 한나 여전도회(7월18일)
- 금요일아담당부서: 사랑부,예배대부 (16일) 요리담당부 신혼가정부(23일)
- 금주의 식사: 양상용 성도 박계순 집사 가정(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